

## 출제 개요

### ‘자유주의와 국가 개입 및 공동체주의’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위해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국가 개입에 대한 논란(자유지상주의와 평등적 자유주의)을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또 다른 관점(공동체주의)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했다.

<문제 I>은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대립적인 태도를 갖는 부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시문 [가], [나], [바]는 개인에게 국가 통제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다], [라], [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 증진을 위해 국가 개입과 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II>는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가 간과한 공동체적 삶의 조건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 [사]의 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제시문 [마]는 자신과 타인의 자유 증진보다 공동체적 삶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계획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제시문 [바]의 주장도 무제한의 자유는 개인주의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비판될 수 있다.

<문제 III>은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이 결정되는 문제에 대한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됐다.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삼원일차 연립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 과정과 답을 도출할 수 있게 출제했다. 3개의 방정식을 설정하고, 변인 간 관계를 계산하여야 한다. 추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문제에서 언급된 임금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출처]

(가) 한겨레 (2011.3.14) 세금은 나를 국가의 노예로 만든다.

<http://www.hani.co.kr/arti/PRINT/467897.html>

(나) 강준만 (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p. 111-112.

(다) 테렌스 불, 리처드 대거 (2006, 정승현 역).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아카넷. p. 144.

(라) 김남주 (2001). 나의 칼 나의 피 (김남주 시집). 실천문학사.

(마) 정창우 등 (201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 222

(바) 박종현 (2010).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지식인마을27). 김영사. p. 108-109.

(사)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2014).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사월의책. p. 43-44.

# 예시답안(사회계)

## 논제 I

제시문 [가]~[바]는 자유에 대한 사회사상을 다룬 글이다. [가], [나], [바]는 개인의 행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다], [라], [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평등적 자유주의’를 지지한다.

[가]는 개인 행위에 대한 안전규제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부과에 반대한다. [나]는 개인의 의사 표현이 통제 없이 사상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는 국가의 중앙계획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다]는 자신과 타인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조건(복지)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자유 실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라]는 만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마]는 국가가 중립성을 벗어나 구성원 모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497자)

## 논제 II

제시문 [사]는 자유주의가 (자유지상주의이든 평등적 자유주의이든)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가 주체적 자율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개인주의를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덕을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제시문 [마]는 비판받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율성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평등한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 개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적 삶의 여건이며, 국가는 구성원이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도덕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편, 제시문 [바]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계획은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통제되지 않는 시장이며, 국가의 개입은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할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 없는 개인주의로 퇴화할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덕의 윤리를 실현시킬 수는 없다.(695자)

### 문제 III

A와 B가 한 조가 되어 컴퓨터 10대를 생산할 때 소요된 시간이 4시간이므로, 두 사람의 시간당 생산량은  $A+B=10/4$ 대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B와 C가 한 조가 될 때 시간당 생산량은 2대( $B+C=10/5$ 대)이며, A와 C가 한 조일 때 시간당 생산량은 1대( $A+C=10/10$ 대)이다.

위에서 구한 3가지 식으로 삼원일차 연립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시간당 컴퓨터 생산 대수는 A가  $3/4$ 대, B가  $7/4$ 대, C가  $1/4$ 대로 나타난다. 세 사람의 일일 급여는 각자의 시간당 생산량에 하루 노동 시간 8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A의 일일 급여는 6만원, B의 급여는 14만원, C의 급여는 2만원이 된다.

제시문 [가]의 주장에 따르면, K컴퓨터 회사의 임금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K컴퓨터 회사는 개인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그 결과 직원 간 임금 차이는 생산성에 따라 7배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동에 통제가 없어야 하며, 결과도 개인이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한다. 부의 재분배와 같은 국가의 인위적 개입에 반대한다. K컴퓨터의 임금 정책은 철저히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책정됐으며, 인위적 임금 재분배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은 K컴퓨터의 임금 정책과 부합된다. (652자)